

KAFLA NEWS

California Nonprofit of the Year 2022



IN THIS ISSUE



CA NONPROFIT OF THE YEAR 2022

SPECIAL LECTURE ON THE NEW COLD WAR

CALIFORNIA MORTGAGE RELIEF PROGRAM

"HELP UKRAINE" CAMPAIGN UPDATE

LA한인회 창립 이래 첫 "올해의 비영리단체"상 수상

by Jeff Lee

지난 6월 8일 새크라멘토, 주 의사당 앞에서 열린 캘리포니아 비영리단체의 날 행사에서 LA한인회가 캘리포니아 비영리단체 협회(California Association of Nonprofits, CalNonprofits)가 수여하는 '2022 올해의 비영리단체상'을 수상했습니다.

LA한인회가 '최우수 비영리단체'로 선정돼 올해의 비영리단체상을 수상하기는 지난 1962년, 올해로 창립 60주년 이래 LA 한인회 역사상 처음입니다.

LA한인회를 최우수 비영리단체로 추천한 마리아 엘레나 듀라조 주상원의원은 LA 한인회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영어가 미숙한 한인 2만여명이 5천만달러에 달하는 구호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50만달러의 자체 구호기금을 조성해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1,200여명의 저소득층 한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추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 듀라조 주 상원의원은 LA 한인회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급증한 아시아인 증오범죄 방지를 위해 한인타운에서 평화 행진을 주도했으며, 자체 KAFLA TV 방송을 통해 한인들에게 코로나 19와 관련된 각종 구호기금 및 정부 지원 신청방법 등을 널리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제임스 안 한인회장은 "팬데믹 2년간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인회가 펼쳐온 봉사활동을 주의회로부터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LA 한인회는 한인들과 함께 하고, 한인들을 위해 봉사하며 한인들의 목소리를 미국 주류사회에서 대변하는 한인사회 대표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LA한인회의 수상은 비단 한인회 뿐만 아니라, 한인회를 지지해 주시는 수많은 한인들과 한인 후원사들,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로 모두가 함께 수상한 것이나 다름 없으며,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인타운 지역구 마리아 엘레나 듀라조 상원의원(24지구)
Maria Elena Durazo, Koreatown District 24 Senator

On June 8th, 2022, the California Association of Nonprofits (CalNonprofits) hosted the California Nonprofit Day gathering in front of the State Capitol in Sacramento.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KAFLA) received a '2022 Nonprofit of the Year Award'.

It is the first time in KAFLA's history to receive statewide recognition as a recipient of a California Nonprofit of the Year award since its founding in 1962. CalNonprofits has held the awards program for seven years.

State Senator Maria Elena Durazo said that she nominated KAFLA because it helped more than 20,000 Korean Americans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cy to receive over \$50 million in relief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he also expressed being touched when KAFLA created a relief fund and provided financial support to 1,200 low-income families, including undocumented immigrants.

In addition, Senator Durazo said that KAFLA partook a large role in advocating for anti-Asian hat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rough peace marches, media outreach, and self-defense training for the elderly.

James An, KAFLA president, attended the awards ceremony. An said, "I am delighted to be recognized by the state for the work that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has been doing despite the risk of infection during the pandemic. We will faithfully work to fulfill our role as a representative organization and voice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continue to serve their needs."



왼쪽부터, 듀라조 가주상원의원, 데이브 민 가주상원의원, 스티브 강 부회장, 제임스 안 회장
From left, Senator Durazo, Senator Dave Min, KAFLA VP Steve Kang, KAFLA President James An

정세균 전 국회의장 초청 특별강연회 개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냉전시대라는 뉴스가 나올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각 국가간 이해와 입장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LA한인회에서는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를 돕기 위한 지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많은 한인들께서 민간차원의 동포들도 참여하는데 반해, 왜 모국인 한국에서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컸습니다.

이에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국무총리까지 역임하신 국내 최고 정치인이자 행정가이신 정세균 전 의장님을 초청하여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In the aftermath of the Ukrainian War, news of a new Cold War-era centered on Russi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as emerged. It is pivotal to understand each country's position on the current situation.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is running a campaign to help support Ukrainian and Korean compatriots. While many Koreans participated privately,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actively provided assistance to Korean compatriots affected by the Russo-Ukrainian war.

In response, former Prime Minister of South Korea, Chung Sye-Kyun, who also served as a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was invited to a special lecture on the topic of Korea's position on the Ukraine crisis, the future of the Korea-US alliance,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프로그램 - 적용대상 확대 공식 발표

지난 6월14일, 캘리포니아 주택금융국에서는 LA한인회를 찾아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프로그램의 재개와 자격 확대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모기지구제프로그램'은 팬데믹으로 영향으로 모기지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12월 시작되었다가, 자금고갈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이후 연방예산의 지원으로 다시 프로그램이 재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는 루데스 카스트로 라미레즈 가주 주택장관과 티에나 존슨 홀 가주 주택금융국 국장 등 가주 주택정책 당국 수뇌부와 지역의 정치인들, 지역의 주택 관련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주정부의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확대에 발표하였습니다.

지원자격을 살펴보면 기존 중간소득 100%에서 150%로, 그리고 모기지 지연체기간도 2021년12월 기준에서 2022년 6월로 확대되었고, 재산세가 체납된 주민도 신청가능합니다.



LA한인회에서는 지난5월, 이 모기지구제프로그램의 대행 단체로 선정되어 \$385,000의 그랜트를 지원받으며, 앞으로 한인 및 주민들의 모기지구제프로그램의 신청과 진행을 도울 예정입니다.

On June 14th, the California Housing Finance Agency (Cal HFA) held a press conference at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and disclosed the details of its new expanded eligibility criteria for the California Mortgage Relief Program (CMRP).

A large number of California housing policy authorities, including State Housing Minister Lourdes Castro Ramirez and Cal HFA Executive Director Tiena Johnson Hall, local politicians, and officials from local housing-related non-profit organizations attended the press conference to announce the expansion of the state's mortgage relief program. The eligibility criteria expanded by raising the maximum median income from 100% to 150%. The period of delinquency for mortgages has also been extended from December 2021 to June 2022. In addition, residents with arrears in property tax can also apply for assistance.

KAFLA was selected as a local partner agency for the CMRP in May 2022 and received a \$385,000 grant to conduct outreach, application intake, assistance, and case management.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연방 주택소유주 지원 기금을 사용해 주택소유자들이 미납한 주택 납부금과 재산세를 만회하도록 돕습니다.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무료이며 지원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 요건

모기지나 역(Reverse)모기지를 갖고 있거나 또는 모기지가 없는 모기지-프리거나 상관 없이 이 프로그램은 주택소유자들이 연체한 주택 납부금을 해결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카운터 지역 중간소득에 근거한 가구 소득 자격 요건 부합



단독 주택, 콘도, 또는 영구 부착 제조 주택 소유



모기지 구제 최대 무상 지원금 액수 \$80,000
재산세 납부 최대 무상 지원금 액수 \$20,000

- 연대미 관련 채 정적 어려움 필수 ✓
- 2022년 6월30일 이전에 2회 이상 연체 및 현재도 미납 상태 ✓
- 2022년 5월31일 이전에 1회 이상 연체 및 현재도 미납 상태 ✓

모기지나 재산세가 밀려있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https://camortgagerelief.org/ko/>

혼자 신청하기 어려우나요?
LA한인회로 연락하세요. ☎ 213-999-4932

우크라이나 동포돕기 캠페인 - 중간보고(6.23.22)

#보도자료(06-23-2022)

<우크라이나 우리동포 돕기 캠페인 경과 중간 보고>

#캠페인 경과

LA 한인회는 지난 3월 8일, 커뮤니티 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러시아의 침공으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우크라이나 동포들의 실상을 영상자료들을 통해 확인하고, 6.25 한국전쟁으로 잿더미나 다름없던 한국이 전세계적인 원조로 일어설 수 있었던 과거를 떠올리며,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라는 공감대로 '우크라이나 우리동포 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단체장회의에서는 기금모금과 지원방식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현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식료품과 휴지나 기저귀 같은 생필품인데 폭격으로 물류가 중단되어, 비록 비싼 값이지만 암시장(Black Market)에서는 구입이 가능한 점, 그리고 전쟁이 끝나더라도 복구에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여, 이번 캠페인의 지원 목적을 아래의 세가지로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 현지에 고립되어 있는 우리동포 지원

둘째, 우크라이나를 탈출하여 인접국가 및 한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우리동포 지원 셋째, 이민 5세대인 고려인 동포들이 한동포임을 교육하고 있는, '정수리학교'의 재건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금 캠페인에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LA 동포들은 물론, 인근 지역과 멀리 하와이, 아리조나, 텍사스 등 타주에 이르기까지, 이제까지 123 곳의 개인, 회사, 교회 및 단체에서 5 불에서 5 만불에 이르기 까지, 전폭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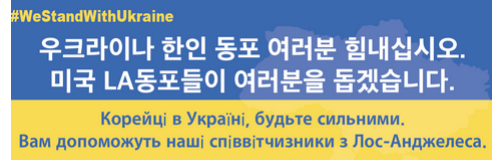
LA 한인회에서는 순수한 선의로 모금에 참여해 주신 동포들의 성금이, 단 1 센트도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현지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피난민 우리동포를 만나기 위해, 제임스 안 회장과 화랑정소년 재단 박윤숙 총재가 함께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Moldova(4/7~4/10)를 자부담으로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고려인 피난민 쉼터가 되어주고 있는 노을 레거먼트(*새인악교회)에 피난중인 약 26 여분의 고려인 동포들을 만나 LA 동포들의 성금을 전달하고, 별다른 지원도 없이 힘든 구호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서 피난민들의 실상을 확인하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Romania 피난민캠프에 체류중인 동포들(6-3)
Compatriots at a refugee camp in Romania (6-3)



몰도바에서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시는 동포들(6-10)
Compatriots in Moldova, returning to Ukraine (6-10)



#우크라이나 동포 파악 및 지원, 현지 협력분들

현재 LA 한인회에서는 고려인 동포들의신원 파악과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인접국가에서 활동하시는 아래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 - 최광순 교수(우크라이나 국립세우대학 한국어학과장), 율가신 교장(정수리학교 교장), 라리사 김
- Moldova - 한호진 선교사(몰도바 국제자유대학 한국어센터장, 영사협력원), 김형준 선교사, 현지인인 미하일, 안드레이 목사
- Romania - 이성현 선교사

#지원 기준

모여진 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비록 전쟁으로 현지 상황이 어렵더라도 몇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첫째, 어린이들을 통해 신원이 파악된 동포들에게는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으로 \$500 불 지원
- 둘째, 한국으로의 이주를 바라는 분들에게는 여권과 한국비자가 준비된 상태에서 항공권 지원
- 셋째, 피난민 쉼터등에서 체류하는 동포들에 쓰인 식료품 및 생필품등 영수증 내역이 구비되면 해당경비 지원

#지원 현황

6월 23일 기준, 캠페인 시작부터 지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금내역

3/8 ~ 6/22/2022 까지 123 개인 및 기관, 교회등	\$ 184,620	세부내역 별도첨부
-------------------------------------	------------	-----------

• 지원 내역

구분	날짜	지원 내역	금액(\$)	참고
1 차	4/4	우크라이나 현지 고립 30 가정	15,000	각 \$500
2 차	4/10	몰도바 현지 방문, 동포 26 명(한국비자수속 및 루마니아 이주 경비 지원), 현지 구호담당 3 월분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8,700	개인별 지원\$200 한호진 \$1,000 김형준 \$1,000 현지선교사 3 명 각 \$500
3 차	5/10	몰도바 & 루마니아 현지 피난처 4 월분 지원	1,000	김형준
	5/10	루마니아 → 한국, 항공권 지원(*태양여행사)	2,756	Ira Kim 가정 4 명
4 차	6/3	우크라이나 현지 고립 52 가정	26,000	각 \$500

총계	53,456	
송금수수료 및 온라인모금(web) stripe.com fee 등	95.36	
현재 가용 기금	131,068.64	6/23/2022 기준

#향후 지원 예정사항

- 현지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며 현지 상황을 파악하면, 현재도 몰도바등 인접국가로 피난 나오는 고려인 동포들은 꾸준한데, 인접국가나 한국등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이민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큰 부담감과 자녀등의 문제로 앞길을 쉬이 정하지 못하는 동포들이 많다고 합니다.
- 여권이 유효하여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시는 분, 불과 며칠만에 다른 인접국가로 살길 찾아 떠나시는 분, 몰도바-루마니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시길 희망하시며 체류하는 분등 다양한 상황으로, LA 한인회에서는 교수님과 선교사님등 현지 담당자 분들과 동포들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피난처 소요 경비 및 항공권 지원 등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지원 원칙에 따라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전쟁의 장기화와 소강상태가 길어짐에 따라 피난민들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이미 한국 고려인 마을로 가신 동포들 역시 별다른 정부지원이 없어, 생계가 쉽지 않다는 소식들도 계속 전해지고 있어, 이 부분도 신중히 지켜 보고 있습니다.
- 관련 자료들과 함께 중간보고 형식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LA 한인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started the "Help Ukraine!" campaign on March 8th, 2022 to provide support to Korean-Ukrainians affected by the Russo-Ukrainian war.

The purpose of the campaign is divided into the following:

1. Support for Korean-Ukrainians stuck in Ukraine
2. Support for compatriots who were able to escape from war and are waiting for refuge
3. Support for compatriots seeking shelter in Jung Soo Ri school

In order to ensure that 100% of the collected proceeds are used to support compatriots affected by the Russo-Ukrainian war, KAFLA President James An, and Hwarang Chairman Park Yoon Suk visited Moldova (4/7-4/10) and met with affiliated officials helping KAFLA to distribute relief funds and necessities.

- Ukraine - Professor Gwang Soon Choi, Principal Olga Shin, Larysa Kim
- Moldova - Missioner Ho Jin Han, Missioner Hyeon Jun Kim, local community member Mihail, Pastor Andre
- Romania - Missioner Sung Hyun Lee

Types of Assistance

- \$500 Relief Fund (to be eligible, at least 1 document to verify identity such as a passport)
- Airfare to Korea (to be eligible, at least 1 document to verify identity such as a passport and a valid Korean visa)
- Living, Transportation Expenses (to be eligible, at least 1 document to verify identity such as a passport; for compatriots staying at shelters that provide necessities, other corresponding expenses will be supported)

Status Report

- From March 8th, 2022 - June 22nd, 2022, a total of \$184,620 in donations were received from 123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Expense Report

Round	Date	Summary	Cost	Notes
1	4/4	Relief Fund for Korean-Ukrainian's stuck in Ukraine	\$15,000	(\$500 each, 30 members)
2	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ldova travel expenses • Moldova to Romania transportation fees for refugee • Basic necessities for Korean-Ukrainian's in Ukraine 	\$8,700	Individual: \$200 Han Ho Jin: \$1,000 Kim, Hyeong Jun: \$1,000 Missioners in Ukraine: \$1,500 (\$500 each for 3 people)
3	5/10	Moldova & Romania refugee expenses	\$1,000	Kim, Hyeong Jun
	5/10	Romania -> South Korea air fare (Taeyang Travel)	\$2,756	Ira Kim (family of 4)
4	6/3	52 families in Ukraine	\$26,000	(\$500 each, 52 families)

Expenses Used for Compatriots	\$53,456	
Bank Wire Fee, Donation Website Fee	95.36	
Total Donation's Left	\$131,068.64	As of 06/23/2022



몰도바 스테우체니 지역 피난처학교에 체류중인 동포 학생들(7-1)
Korean Ukraine students staying at a school shelter in Moldova (7-1)



남가주교회연합 우크라이나 기금전달(5-20)
Donation of funds from the Southern California Churches' Union (5-20)



나성영락교회 우크라이나 기금전달(6-3)
Donation of funds from the Youngnak Church of L.A. (6-3)



하시엔다감리교회 우크라이나 기금전달(6-28)
Donation of funds from the Hacienda Methodist Church (6-28)

<우크라이나 돕기 성금보낼 곳>
1) 체크 : Pay to "KAFLA", Memo "Help Ukraine"
 보내실 곳 : 981 S. Western Ave #100., L.A. CA 90006
 ▶ 우크라이나 우리동포 돕기 모금 현황 총 \$ 185,620(*6/28기준)